

방희선 교수 용접학회 첫 여성이사



‘국내 용접학 여성박사 1호’를 기록한 방희선 조선대(41·공과대학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2011년 대한용접·접합학회 사업이사에 임명, 최연소 이사 및 1호 여성이사가 됐다.

대한용접·접합학회는 용접 접합에 관한 학문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창립된 이래 대학 및 관련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1500여명의 회원과 35개의 단체회원을 보유한 용접접합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이다.

국제로타리 장흥클럽 회장에 위등씨



위등(48·장흥 현대부품 대리점 대표)씨가 지난 14일 국제로타리클럽 제3610지구 장흥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위 회장은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지역사회에 봉사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강우현 ‘남이섬’ 대표 내일 다산강좌



강우현 (주)남이섬 대표는 17일 오후 3시30분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제233회 강진 다산강좌’에서 ‘내 맘대로 하니 네 맘에도 들려라’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 대표는 남이섬이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관광객 200만이 넘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난 원동력이 무엇인지 공개 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LG화학나주공장 김성대씨 대통령표창



LG화학나주공장 김성대(54) 총무실장이 최근 한국지유총연맹 창립 57주년 기념 ‘자유의 날 선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 실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전남특별지회회장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라사랑정신고취를 위해 태극기 달이주기와 무궁화 나무심기운동을 앞장서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kwangju.co.kr

광주 조증의씨 등 3명 ‘효자·효부상’

광주 남구 조증의(64)씨 등 3명이 대한민국전불 국경유족회가 주관하는 ‘제34회 효자·효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씨는 90세의 노모를 극진히 모시면서 유족회 지회장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정신으로 회원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순화(여·51·영암 군서면)씨는 지난 25년 동안 독립유공자의 아내이자 국가유공자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다.

송정자(여·69·전주 원산구)씨는 아들을 나라에 바친 시어머니를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효자·효부상은 자식을 나라에 바친 전몰군경의 부모를 극진히 봉양해 귀감이 되는 효자·효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1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



“음식 요리하듯 수박 키웁니다”

235000원짜리 ‘탑2호’ 고창 수박 명인 김종일씨

수박 한통이 평균 1만6000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14배가 넘는 대박이다. 김씨에게 비법을 들어봤다.

김씨는 “음식을 요리한다는 마음으로 수박을 재배한 것이 교수, 요리사 등 심사위원 20명을 만족시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배 방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감탄이 나오는 과일을 만들겠다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달구지에 맹석을 깔아 조심스럽게 수박을 나를 때부터 시작해 지난 40년 동안 수박 농사만을 지어온 김씨의 철학이기도 하다.

탑2호로 선정된 수박은 김씨가 지난 2월 28일 8264m²(약 2500평) 규모의 하우스 15동에 심은 조생감자 품종으로 6월 초부터 수확한 수박 4500여 통 가운데 한통이다.

김씨가 재배기간 동안 가장 신경 쓴 것은 온도

다. 특히 지난 겨울은 추위가 유난히도 장기간 지

속돼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하우스 땅에 열선을 깔아 지온을 높이는 신경 썼다. 또 벽짚을 덮어 보온 효과를 내면서 자연스레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되고 나서는 30일간 30~35도로 고온다습하게 유지해 단도를 높였다고 한다.

물론 지난 세월동안 장마, 폭우 등으로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턱한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일흔의 나이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수박시험장 등을 오가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열정도 한몫했다. 이렇게 재배한 수박은 시중에서도 일반수박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한다.

김씨는 “여름에는 수박만한 과일이 없는데, 눈으로만 고르기 때문에 맛좋은 수박을 선택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며 “고유의 색깔과 호피무늬가 뚜렷하고 꽃자리가 작은 수박이 맛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투구모형 독특…뿌리 속 곰팡이와 공생

<40> 유틸난초

키 1m까지 자라는 난초과의 여려해살이풀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으로 지정돼 있다. 잎이 없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 부생식물로, 뿌리 속에 있는 아르밀라리아 멜레아리는 곰팡이와 공생한다.

숙명 Galeola는 라틴어 galea(투구)에서 유래되었는데, 다른 난처한 꽃반침침이 뒤로 젖혀지지 않아서 투구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박성복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지원보전과장)

호남대 개교 33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성인학원(이사장 박기인) 호남대(총장 서강석) 개교 33주년 기념식이 15일 광산캠퍼스 상하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호남대 제공>



광주정장중학교(교장 김용오)는 최근 국민은행과 ‘결식이동 급식지원 협약’을 맺고 결식이동이 없는 행복한 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충장중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국군합평병원과 공동으로 지난 14일 장병 200여명에게 금연클리닉을 비롯해 병사 자살방지 서약 손장 찍기 등 건강증진캠페인을 실시했다.

‘연변청소년 과학축제’ 이끈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센터

“일! 어버린 소중한 가치, 조선족 아이들이 지켜내”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영숙 센터장) 소속 과학강사들이 중국 연변에서 특별한 과학강의를 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사)국제과학문화협회 박행순 전남대 교수가 이끄는 과학방문단의 일원으로 길림성 연길시 공원소학교를 방문, ‘2011 중국 연변청소년 과학꿈나루 축제’를 주관했다.

공원소학교는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 내에 있는 가장 큰 조선족 초등학교로 1500여명의 학생들이 120명의 교사에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 예절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다.

과학 강사들은 이날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태양계, 바이러스, 편광마술, 들숨과 날숨 등의 모델

을 직접 만들고 원리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마음껏 과학적 상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파워포인트로 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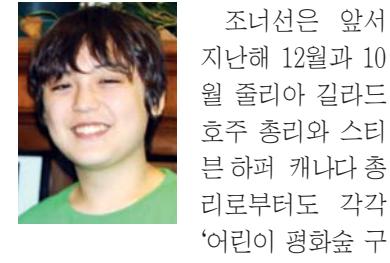
연변 과학축제는 조선족 어린이들의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글로벌 리더로서 안목을 기운다는 광주전남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비전에 따라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박행순 교수는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공원소학교의 노력에 감동했다”며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국계 어린이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 오바마 美대통령 친필 격려편지 받아



조너선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10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로부터도 각각 ‘여린이 평화奖金 구상’과 관련된 격려 서한을 받았다.

‘고 그린맨(Go Greenman)’으로 유명한 조너선은 지난해 8월 12~19일 북한을 방문해 간접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관문점 어린이 평화숲’을 조성하자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목포대 혁형만 교수 13번째 동인지 발간



“작품을 잘 쓰는 것보다 먼저 사람 이 되어야 한다는 시(詩) 정신 교육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15일 오전 11시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목포 문학, 아니 한국 현대문학사에 이정표가 될만한 조촐하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목포대 평생교육원 ‘현대시 창작반 수료식’을 겸한 동인지 ‘살아있는 시’ 제13집 출판기념식. 지난 15년간 평생교육원을 이끌면서 이번에 13권째 동인지 발간 신기록으로 인도한 주역은 혁형만 교수다.

허 교수는 올해 30년 봄ද았던 교단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정년 후에도 매주 수요일 평생교육원에는 출강할 계획이다.

허 교수는 “평생교육원 개강 15년, 동인지 발간 13년째를 맞아 되돌아보면 창간호에 29명이 참여한 이후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다녀갔다”면서 “이번호에도 무려 4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5년 전 첫 개강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시를 써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원 제자 중 신춘문예와 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떳떳하게 등단해 한국시단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만도 25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한국시인협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펜클럽본부 투옥작가위원회 국대 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 ‘그늘이라는 말’ 등 13권을 냈으며 한국시인협회상, 영광시 문학상 등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 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축

▲유후열·이애경씨 장남 재화군 정백화(전남도 보육아동담당)씨 장녀 빙민정양=18일(토) 오후 1시 광주 상록웨딩홀 3층 무공화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16회 동창회(회장 김관재) 월례회=16일(목) 오후 7시 수립회관 062-223-0028.

▲북성중 17회 동창회(회장 유영규) 월례회=17일(금) 오후 7시 일송점 062-525-9977.

▲동신고 17회 동창회(회장 정재근) 출입 25주년 총동문회 체육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열) 사무실 개소식=18일(토) 오후 6시 동양OA 펴쳐 비지니스 보르네오

종친회

▲조대부고 30회(회장 조향훈) 30주년 흥국미팅데이=18일(토) 오후 6시 광주 흥리데이인호텔 011-608-9049, 011-606-8113.

▲살레이시오 여중·고 18회 졸업 30주년 흥국미팅데이=18일(토)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011-624-3165.

▲광주 경신여고 제6회 졸업 30주년 흥국미팅데이=18일(토) 오후 5시 30분 무등파크호텔 010-560-5852.

▲살레이시오 여중·고 총동문회=19일(일) 오전 10시 30분 모교 강당 011-624-3165.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화장품·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향우회

▲재광 보성을 항우회(회장 김선주) 정기총회=23일(목) 오후 6시 30분 흥백회관 062-228-3382.

모집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약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김옥심씨 별세 최영수·옹수·양수·옥수(광주CBS사업국장)씨 모친=발인 17일(금) 목포중앙병원장례식장 201호 061-271-4444.

▲정인실씨 별세 이옥섭·한준·의정수(광주CBS사업국장)씨 모친=발인 201호 062-515-4488.

부음

▲김옥심씨 별세 최영수·옹수·양수·옥수(광주CBS사업국장)씨 모친=발인 17일(금) 목포중앙병원장례식장 201호 061-271-4444.